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받는다… “원팀으로 성과 창출”

12일까지 20여개 기관 집중 점검
2026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사회 책임 등 국민 눈높이서 볼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20여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접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원전 수출체계 개편안에 대한 검토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8일~12일까지 20여 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핵심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시각에서 신뢰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상하이) 진출 소비자·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모든 업무보고는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기관장을 비롯해 차관·실장, 소관 국·과장과 실무자, 공공

기관·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국정기조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 대국민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도 국민 눈높이에서 살필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작년에는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를 창출할 차례”라며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1회차 업무보고는 가스 및 원전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이 참석했다.

가스 분야에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 지원 ▲AI 기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원전 수출 분야에서는 ▲베트남·체코 등 중점 국가와의 협력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뉜 해외 원전사업 역할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양쪽 의견을 듣고 장관이 이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에는 무역안보관리원, 산업기술시험원, 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회차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수

출통제 대응 및 불법수출 차단 ▲첨단 산업 시험·인증 역량 확보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역량 강화 ▲AI 신뢰성 인증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3회차 업무보고에서는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성장 전략,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진행되는 4회차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이상 달성 방안 등 자원안보와 경제활성화에 직결된 현안이 집중 점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무보, 한국기업 미국 시장 진출 돕는다

한미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美 금융 조달 불확실성 해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 대표 한인 금융기관과 손잡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은행(Hanmi Bank)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구축과 공급망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 금융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의 수출금융을 공동 제공하며,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무보와 한미은행은 ▲미국 시장 내 수출·수주 거래 ▲공급망 투자 ▲에너지 및 신산업 분야 투자 거래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바니 이 한미은행 행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수요 발굴을 위한 현지 투자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무보와 기업금융에 강점을 지닌 한미은행 간 협업은 푸드·뷰티 등 K-컬처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

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2019년부터 한국 기업 전담 서비스 채널인 ‘코리아 데스크’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한국 기업 지원에 특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LA, 뉴욕, 조지아, 텍사스 등 미국 주요 거점에는 한국 기업 대출 전담 인력도 배치돼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해외녹색사업에 600억 출자

민간투자금 더해 1조 규모 신규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을 출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녹색펀드는 정부자금 600억 원과 민간투자금이 연결돼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녹색펀드는 탄소감축·에너지전환·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를 가리킨다.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자본 투자·대출 방식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2024년 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약 3000억 원과 민간투자 2091억 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투자로 국내 기업은 4조 9000억 원 이상의 해외 수출·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또 100여 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들도 녹색펀드가 투자한 해외 신규사업에 대기업과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전 세계 녹색산업 가치연계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년간 실제 투자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펀드의 투자 체계를 완성했다. 지난 연말 기준 해외 신규사업 총 5건에 대해 녹색펀드 자금 1462억 원이 투자됐다.

정부 출자 녹색펀드가 해외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외 발주처 입찰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발휘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진청, 베트남 농가에 K-농기계 기증

총 3종 11대 전달… 생산성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이 베트남 북중부 지역 농가에 한국산 농기계를 지원한다. 이 지역 땅콩 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는 국제개발 협력사업(KOPIA)을 통해 종자·기술·기계화까지 아우르는 ‘패키지형 농업 협력 모델’을 본격화하는 행보다.

8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베트남 응에안성 소재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이 열렸다. 기증식은 KOPIA 베트남센터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베트남 북중부 지역 땅콩 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은 토양관리기 7대, 땅콩 탈곡기 2대, 땅콩 탈피기 2대 등 총 3종 11대



이달 6일 베트남 응에안성 빈시에 위치한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농진청

의 농기계를 응에안성, 하띤성, 팜빈성 등 북중부 건조지역 3개 성의 땅콩 시범 마을에 전달했다.

해당 농기계가 현장에 도입되면 밭고르기, 이랑 만들기, 비닐 피복, 수확, 탈곡까지 땅콩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 작업이 가능해진다. 작업 효율을 높이고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임직원 성비위·호화출장 수사의뢰

농식품부, 특별감사결과 발표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이 임직원 성비위 및 배임 등을 적발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금을 1박에 200만 원 넘는 출장비로 쓰는 등 방만한 경비 집행 실태가 정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본 2건을 수사 의뢰하고, 향후 농협협동

조합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조직 내 성비위, 배임 등 중징계에 대한 목인을 비롯해 인사의 독립성 훼손, 강호동 회장의 해외호텔 호화 숙박, 내부 통제 부재 등이 담겼다.

외부 감사위원인 이승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는 고발이 원칙인데도 2022년 이후 징계 21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에 대해 고발 여부를 심의할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6건은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으로, 6건 모두 다른 직원이며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도 모두 내부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제재가 시작되는 사전처분통지를 내릴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이 1박 250달러(3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넘는 5성급 스위트룸 등에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은 “5차례 해외 출장에서 1박당 상한보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했다”며 “조과(집행)된 부분 환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